■ 영화

Alita: Battle Angel

-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즈
- 출연: 로사 살라자르 (알리타 역), 키언 존슨 (휴고 역)
  크리스토프 왈츠 (닥터 다이슨 이도 역)
  마허샬라 알리 (벡터 역), 제니퍼 코넬리 (시렌 역)
  에드 스크레인 (자팡 역), 라나 콘도르 (코요미 역)
  에이사 곤살레스 (니시아나 역)
  미셸 로드리게즈 (겔다 역)
  캐스퍼 반 디엔 (아모크 역)
- 러닝타임: 122분
- 등급: PG-13
- 개봉일: 2019년 2월 14일
- 장르: 액션, 모험

[줄거리]

모두가 갈망하는 공중도시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고철도시로 나누어진 26세기.

고철 더미 속 모든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알리타는 마음 따뜻한 의사 이도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도는 사이보그인 알리타에게 특별한 과거의 비밀과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스터리한 과거로부터 그녀를 지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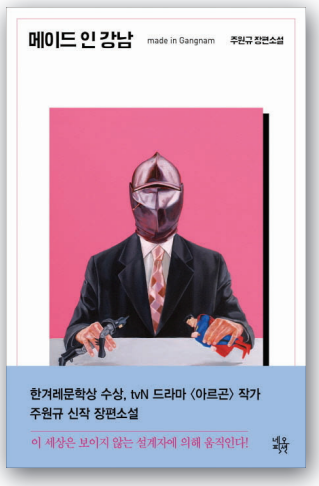
한편, 새로운 친구 휴고는 알리타가 위험한 고철도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기억을 되찾도록 돕는다.

알리타가 자신의 과거에 다가 갈수록 도시를 지배하는 악랄한 세력들이 그녀를 노리며 제거하려고 하고 자신이 착취와 약탈의 고철도시를 구할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게 된 알리타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새로운 세상을 위해 통제된 세상의 무시무시한 적들과 맞서게 되는데……

인간의 두뇌를 가진 기계 소녀.
그녀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진짜 나를 깨워라!

■ 신간

메이드 인 강남



<열외인종 잔혹사>, <반인간선언>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삶의 표면 위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주원규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이번 작품은 한국 사회의 모든 자본과 욕망이 몰리는 강남을 배경으로, 헤어날 수 없는 욕망의 덫에 빠져 좀비처럼 도시를 떠도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야기한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곳도 강남이며, 배금주의가 낳은 자본의 노예들이 괴이한 동경과 애증을 갖고 모여드는 곳도 강남"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욕망과 천민자본주의로 점철된 강남의 모습을 화려하지만 어두운 색채로 그려내고 있다. (인터넷교보문고 '책소개' 중에서)

■ 주원규 지음 | 네오픽션 펴냄 | 192쪽